한양대학교 2017학년도 신입학전형 모의논술고사

인 문 계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본 문제는 모두 네 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문 (가)는 고등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작품으로서, 현행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 6종, 『독서와 문법』 교과서 1종, 『국어』 교과서 1종에 수록되어 있다. (나)는 그 핵심 개념인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자체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 『도덕』 교과서의 '배려적 사고' 개념, 『사회·문화』 교과서의 '사회적 소수자' 개념을 바탕으로 심화시킨 지문이다. 지문 (다)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글로서 모든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 출제자가 요약, 정리한 것이다. 지문 (라)는 몇몇 단어에 대한 사전의 일반적인 뜻풀이를 소개한 것이다.

이 문제는 근래 들어 부쩍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혐오 표현을 비롯한 편견 표현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다. 편견 표현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데 언어적 표현을 고치는 일이 과연 어떤 의의를 가질 것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바라보는 대립적인 관점 둘을 소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언어 표현을 고쳐 쓰는 일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 작품과 용어에 대한 객관적 설명문에서 앞세우고 있는 공통된 언어관을 발견하는 추론적 독서 능력이다. 둘째, 외재적 근거에 기초해서 그 언어관을 각각 평가하며, 자신이 구성해 낸 결과를 스스로 성찰해 보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다. 셋째, 실제 쓰이고 있는 단어를 스스로 고쳐 보는 창의적 능력이다.
(가)~(다) 세 개의 지문은 모두 고등학교 과정에 따라 구성된 고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들에게 전혀 무리가 없는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수험자의 독해력과 글쓰기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서, 현실의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접하는 문제 사태를 객관화해 봄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고자 하는 기획에서 출제되었다.

1. 평가의 내용

이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가)와 (나) 지문의 공통된 관점을 발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2) (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 공통된 언어관을 평가하는 비판적 능력.
3) (라)에 제시된 편견 표현을 스스로 고쳐 보는 창의적 능력과 이에 대해 다시 스스로 메타적으로 평가해 보는 비판적 능력.
4)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논증하여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 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 점
논리와 표현	정확하고 논리적인 단어 선택과 문장 구성, 그리고 단락 사이의 유기성 등을 평가한다.		10
내용 이해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가)와 (나)의 공통된 언어관을 발견하는 능력	(가)와 (나) 두 지문이 모두 언어가 사고보다 먼저라는 관점(이른바 '언어 우위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해 냈는가를 평가한다.	20
	(다)의 두 가지 견해에 근거하여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평가하는 능력	(다)의 ㉠ 입장에서는 언어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고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정치적 올바름'을 통해 편견을 배제하려고 하는 주장이나 운동을 지지하게 될 것이고, ㉡ 입장에서는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언어가 바뀔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언어 자체의 변화보다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임을 추론했는가를 평가한다.	30
	(라)의 단어에 담긴 편견적 요소를 비판하는 능력,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메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	(라)에 제시된 단어 중 하나를 택하여 거기에 담긴 편견이나 차별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 주어진 사례에 대한 대안적 단어를 창의적으로 발견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메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 ㉡ 입장을 순환적 관계로 설정하여 논의를 펼칠 수도 있는데, 이를 합리적인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30
구성과 표현	(가)~(다) 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여 정확하게 문제가 요구한 형식에 따라 글을 썼는가 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10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86	<B> 상-중-하 85~71	<C> 상-중-하 70~51	<F> 50 이하
평가 내용	1) (가)와 (나)의 공통된 언어관으로서 '언어 우위설'의 관점을 발견하여 서술하였다. 2) (다)의 ㉠과 ㉡ 두 가지 입장에 근거하여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논리적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평가하였다. 3) (라)의 단어에 담긴 편견이나 차별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단어를 창의적으로 발견해 냈으며, 이에 대해 메타적으로 평가하였다. 4) 글의 형식과 내용에 무리가 없으며, 문장 구사가 바르고 적절하였다.	1)에서 4)까지의 항목 중 한 가지가 부실하거나 미흡하다.	1)에서 4)까지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이 부실하거나 미흡하다.	전혀 글이 엉뚱하거나 제시된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길이	1080 이상 1320자 이하	1320자 초과	950 이상 1320 미만	900자 이상 950자 미만	850자 이상 900자 미만	800자 이상 850자 미만	750자 이상 800자 미만	75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3점	−5점	−8점	−10점	−15점	−30점

원고지 사용법·어문규정	상(0~1개 틀림)	중(2~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3점	−5점

(2) 내용 조직

- (가)의 '이름 부르기'와 (나)의 '정치적 올바름'에 공통된 언어관(언어 우위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함.
- (다)의 ㉠과 ㉡ 각각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지지 혹은 반박하는 내용을 반드시 써야 함.
- (라)에 제시된 단어 중 하나를 택해 거기에 담긴 편견적 요소를 발견하여 왜 그러한지를 분명히 서술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동반되어야 함.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쓰거나 나열하면 감점 요인이 됨.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하고, 두드러지게 그것을 여기면 감점 요인이 됨.